

KLI 고용·노동 리포트

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

2012. 10. 15 | 통권 제31호(2012-19) |

청년 취업난의 악화와 일자리 질의 개선: 어떤 일이 있었는가?

[요약]

- 2004년 이후 청년 취업난은 계속 악화되어 왔고, 그 결과 졸업연기 또는 휴학한 청년의 비중이 증가함.
-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은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,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함.
- 취업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, 상용직 및 정규직 비중, 사회보험 가입률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청년 고용의 질은 개선되어 왔거나 적어도 악화되지는 않았음.
- 취업난 악화와 청년 일자리 질의 개선이라는 모순적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와 임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, 2004~2011년 사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더욱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- 즉,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층의 중소기업 회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, 이는 일자리 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난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함.
- 이러한 결과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‘괜찮은 일자리’의 창출도 필요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.

청년 취업난의 악화

청년 취업난

- 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부족, 그리고 대학 진학률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18~29세 청년 취업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.
 - 청년 고용률도 2004년의 55.7%에서 2011년 51.9% 수준까지 하락함.
- 2006년 이후는 청년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. 지난 수년간 지속된 취업난으로 인한 누적효과가

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더욱 심화되었고,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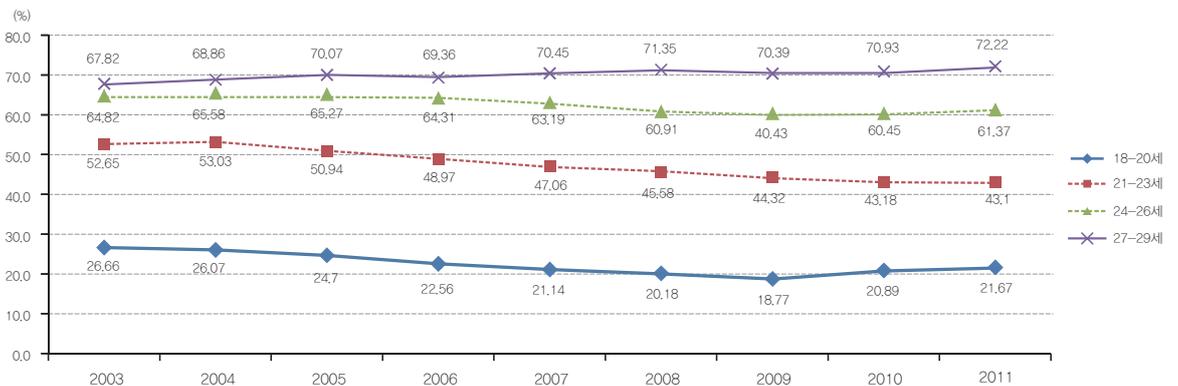
- 3세 단위로 세분하여 청년 고용률을 살펴보면, [그림 2]와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27~29세에서는 고용률이 도리어 상승함.
 - 18~20세, 21~23세 및 24~26세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하였지만 하락폭에 있어서는 21~23세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남.

[그림 1] 18~29세 모든 청년의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[그림 2] 18~29세 모든 청년의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(2003~2011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

휴학의 증가

- 18~20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휴학생의 비중이 증가함.
 - 특히 21~23세는 휴학 비중이 2003년의 13.5%에서 2011년 18.3%로 높아져 휴학 증가를 주도함.
- 여성은 21~23세, 그리고 남성은 24~26세에서 휴학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짐.
 - 4년제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하는 평균 연령이 2011년 5월 기준 남성 25.6세, 여성 23.4세인 점을 감안할 때, 이러한 결과는 졸

업을 앞두고 휴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.

졸업의 지연

- [그림 3]은 재학 중인 18~29세 청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, 2004년 이후 그 비중이 높아짐.
 - 2004년 20.5%였던 재학생의 비중은 2011년 27.1%로 상승하였으며, 이는 남녀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음.
 - 취업난으로 인해 수업학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졸업을 지연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증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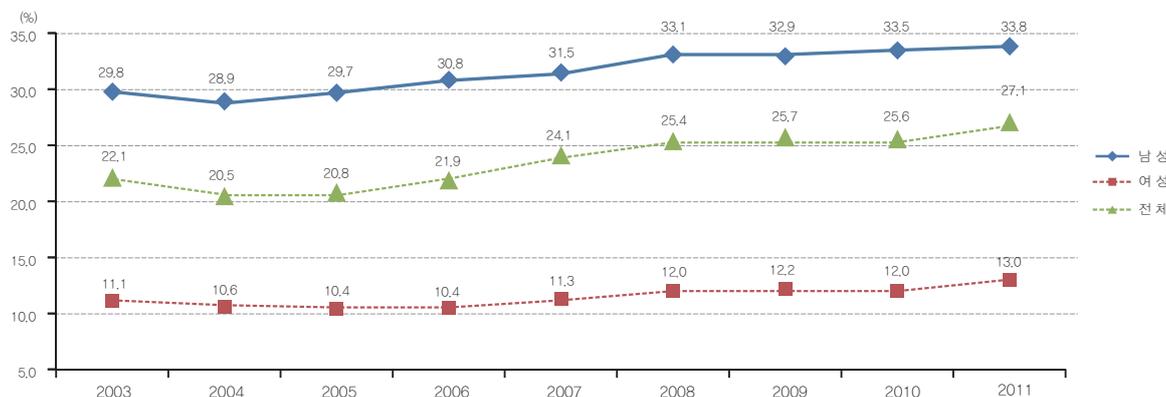
〈표 1〉 휴학 중인 청년의 비중

(단위:%)

	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
남성	18~20세	14.2	13.6	14.7	14.2	11.3	11.1	10.3	10.4	10.7
	21~23세	26.0	27.6	28.5	28.8	26.6	25.6	29.2	28.4	27.7
	24~26세	6.8	8.6	9.4	10.6	9.4	9.0	11.6	12.4	12.0
	27~29세	1.5	2.0	2.2	2.3	3.4	3.2	2.9	3.3	3.1
	18~29세 전체	10.8	11.6	12.0	12.1	11.0	10.4	11.6	12.1	12.0
여성	18~20세	4.2	4.6	5.1	5.2	4.5	4.7	4.5	4.4	5.0
	21~23세	4.6	6.1	6.7	6.1	6.4	8.0	9.7	10.6	10.8
	24~26세	1.6	2.0	2.0	2.0	2.6	2.1	2.3	2.6	2.5
	27~29세	0.4	0.6	1.2	1.2	1.3	1.1	1.2	1.3	1.1
	18~29세 전체	2.6	3.3	3.6	3.4	3.5	3.7	4.1	4.4	4.7
전체	18~20세	8.7	8.7	9.4	9.3	7.6	7.5	7.0	7.0	7.5
	21~23세	13.5	15.0	15.5	15.3	14.9	15.5	17.9	18.5	18.3
	24~26세	4.3	5.3	5.7	6.4	6.0	5.5	7.0	7.6	7.4
	27~29세	1.0	1.4	1.7	1.7	2.4	2.2	2.1	2.3	2.1
	18~29세 전체	6.5	7.2	7.6	7.5	7.1	6.9	7.7	8.1	8.2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[그림 3] 재학 중인 18~29세 청년의 비중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- 4년제 대학 졸업까지의 소요기간도 남녀 모두 증가함.
 - 2007년 58.8개월이 소요되었던 졸업까지의 기간은 2011년 61.0개월로 2.2개월이 늘어났는데, 특히 여성의 졸업소요기간이 남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함.

- 취업난의 악화로 인해 저학력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보았고, 이는 저학력자들의 비중이 높은 나이 어린 청년의 고용률 하락폭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남.

청년 일자리 질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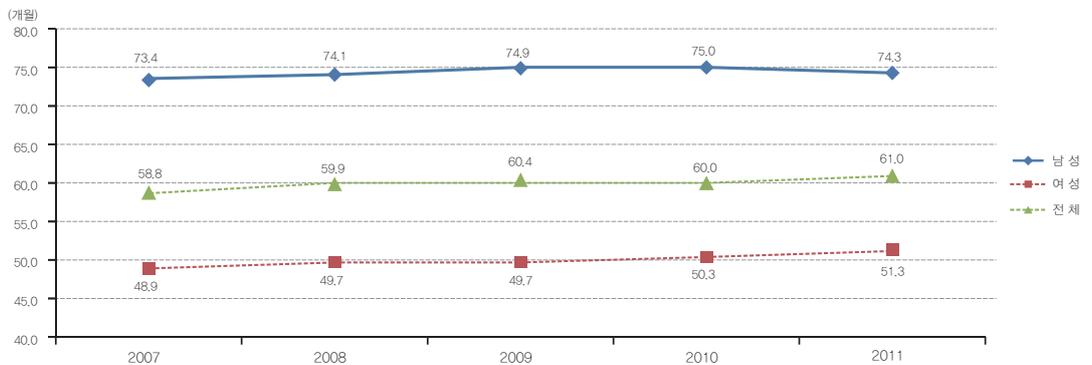
저학력 졸업·중퇴자의 고용률 하락

- 고졸 이하의 고용률 하락폭이 4년제 대졸자의 고용률 하락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 - 전문대졸의 고용률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, 이는 대졸 학력자들이 전문대졸의 일자리를 잠식하였지만 동시에 전문대졸 학력자들도 고졸 이하의 일자리를 잠식하였고, 그 결과 고용률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.

상용직의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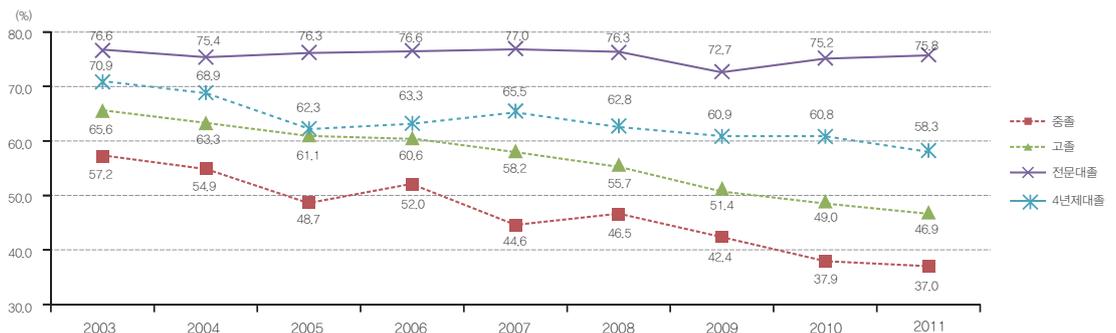
- '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·중퇴'한 15~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, 임시·일용직 임금근로 및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감소함.
 - 2003년 이후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, 이는 임시직의 감소와 자영업의 경영위기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의 축소에 주로 기인한 것임.

[그림 4] 18~29세 청년의 4년제 대학 졸업 소요기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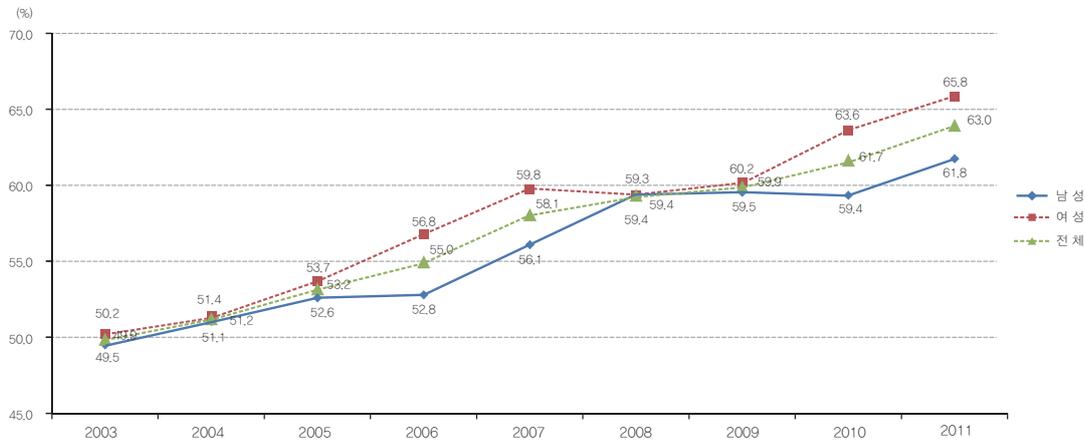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」, 각 연도 5월.

[그림 5] 입시학원 통학이 아닌 졸업·중퇴자의 학력별 고용률(2003~2011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[그림 6] 15~29세 취업자 중 상용직의 비중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비정규직의 감소

-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‘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·중퇴’한 15~29세 청년 임금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.
 - 2011년 8월의 경우 청년 중 정규직의 비중은 74.1%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65.8%보다 8.3%포인트가 높음.
- 비정규직의 비중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, 2004년 8월 이후 정규직의 비중은 증가하고 반대로 비정규직의 비중은 감소함.
 - ‘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·중퇴’한

15~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4년 9월의 30.0%에서 2011년 8월 25.9%로 하락함.

직장규모의 확대

- ‘1~4인 사업체’에는 1의 지수 값을, ‘5~9인 사업체’는 2의 지수 값을, 그리고 ‘300인 이상 사업체’는 6의 지수 값을 부여하고, 이 지수 값의 평균치 변화를 통해 15~29세 청년 임금근로자가 취업한 사업체 규모의 변화를 측정함.
 - 지수 값의 평균치가 2003년 이후 매우 작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15~29세 청년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규모가 조금씩이지만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.

<표 2> 15~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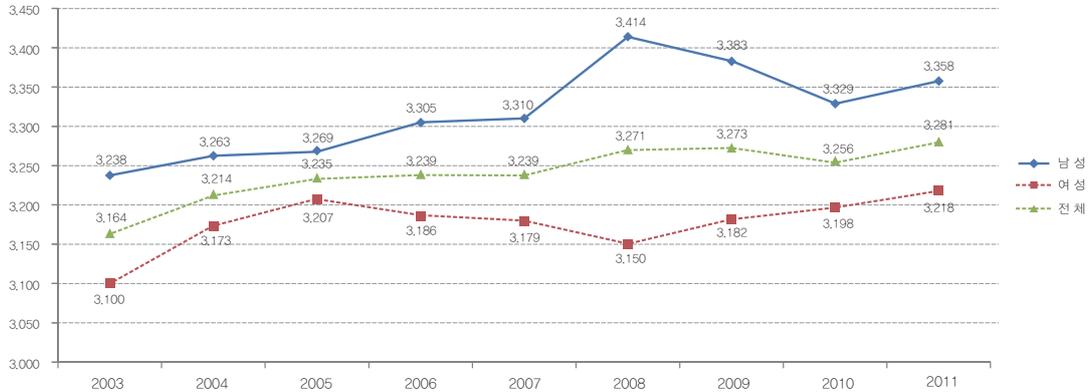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명, %)

	정규직	비정규직				전체 임금근로
		한시직	시간제	비전형	비정규직 합계	
2003. 8	2,546(74.7)	640(18.8)	113(3.3)	222(6.5)	862(25.3)	3,407(100.0)
2004. 8	2,391(70.0)	785(23.0)	114(3.3)	268(7.9)	1,025(30.0)	3,416(100.0)
2005. 8	2,355(71.3)	741(22.4)	120(3.6)	211(6.4)	948(28.7)	3,303(100.0)
2006. 8	2,338(73.1)	708(22.1)	106(3.3)	154(4.8)	862(26.9)	3,199(100.0)
2007. 8	2,305(72.0)	706(22.0)	123(3.8)	196(6.1)	899(28.1)	3,203(100.0)
2008. 8	2,236(73.4)	641(21.1)	89(2.9)	172(5.6)	810(26.6)	3,045(100.0)
2009. 8	2,134(72.6)	631(21.5)	113(3.8)	179(6.1)	807(27.5)	2,941(100.0)
2010. 8	2,151(73.5)	591(20.2)	137(4.7)	163(5.6)	776(26.5)	2,927(100.0)
2011. 8	2,126(74.1)	585(20.4)	110(3.8)	144(5.0)	745(25.9)	2,871(100.0)

주: ()안의 값은 비중(%)임.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, 각 연도 8월.

[그림 7] 15~29세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 지수 값(평균치)의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임금수준의 변화

- ‘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·중퇴’한 18~2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<표 3>에서 보듯이 2011년 8월 159만 1천 원으로 비교대상인 30~54세 임금근로자의 71.6%인 것으로 나타남.
 - 시간당 실질임금은 8,634원으로 30~54세 임금근로자의 70.6%임.
- 2003년 8월에서 2011년 8월까지의 9년 동안 18~29세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은 불과 6.1%만이 증가하였으며, 이처럼 낮은 증가율은 먼저 근로시간의 단축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크게 기인한 것임.

- 2003년 8월부터 5년 동안 월평균 실질임금은 8.9%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8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.6% 하락함.
- 추세적으로 2008년 8월까지의 월평균 실질임금과 시간당 실질임금 모두에서 30~54세 임금근로자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됨.
 -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은 우선적으로 여성, 청년,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관계를 해소하거나 이들의 임금을 조정하는 성향이 있고, 이러한 기업의 행태는 18~29세 임금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추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.

<표 3> 18~29세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(2010=100) 추이

	월평균 실질임금(만 원)				시간당 실질임금(원)			
	18~29세(A)	증감률(%)	30~54세(B)	임금비(A/B)	18~29세(A)	증감률(%)	30~54세(B)	임금비(A/B)
2003. 8	149.9		208.0	0.720	7,315		10,320	0.709
2004. 8	151.5	1.1	209.9	0.722	7,563	3.4	10,618	0.712
2005. 8	154.2	1.8	210.5	0.733	7,675	1.5	10,810	0.710
2006. 8	157.3	2.0	212.7	0.739	7,989	4.1	11,018	0.725
2007. 8	159.4	1.4	219.5	0.726	8,251	3.3	11,449	0.721
2008. 8	163.3	2.4	220.8	0.740	8,558	3.7	11,697	0.732
2009. 8	157.5	-3.6	217.3	0.725	8,336	-2.6	11,752	0.709
2010. 8	158.9	0.8	221.0	0.719	8,526	2.3	11,996	0.711
2011. 8	159.1	0.2	222.4	0.716	8,634	1.3	12,226	0.706

주: 여기에서의 실질임금은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값이다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, 각 연도 8월.

사회보험 가입률의 상승

- ‘입시학원에 통학하지 않는 졸업·중퇴’한 15~29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3년 8월의 61.5%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8월 76.7%를 기록함.
 - 고용보험 가입률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함.
-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15~29세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~54세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보다 높음.
- 사회보험 가입률뿐만이 아니라 퇴직금, 상여금, 시간외수당, 유급휴가 등 각종 혜택에 있어서도 15~29세 임금근로자들은 수혜의 비중을 높여옴.
 - 퇴직금을 받는 15~29세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3년 8월의 57.8%에서 2011년 8월 73.5%로 높아져 왔으며, 상여금이나 유급

휴가에서도 비슷함.

-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임금 이외의 여타 혜택에 있어서도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15~29세 임금근로자가 30~54세 임금근로자보다 수혜를 받는 비중이 더 높음.

기업체 규모와 임금의 변화

- 일자리 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이 여전한 것은 청년들의 기대수준도 함께 상승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청년들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관점에서 ‘좋은 일자리’에의 취업을 요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.
 -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4~2011년의 「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를 이용하여 청년층 일자리의 임금합수를 추정하고 사업체 규모의 임금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봄.

〈표 4〉 청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

(단위: %)

	고용보험		국민건강보험		국민연금	
	15~29세 임금근로자	30~54세 임금근로자	15~29세 임금근로자	30~54세 임금근로자	15~29세 임금근로자	30~54세 임금근로자
2003. 8	61.5	51.2	66.4	61.9	65.4	60.9
2004. 8	63.6	53.0	68.5	62.9	67.6	62.1
2005. 8	66.4	54.1	70.6	63.9	71.0	64.4
2006. 8	69.0	56.1	73.7	65.0	74.5	65.5
2007. 8	70.1	56.5	76.1	65.9	76.3	66.3
2008. 8	71.5	58.3	76.2	67.7	78.2	75.2
2009. 8	72.4	60.5	76.4	69.8	79.0	77.2
2010. 8	73.8	67.2	75.8	70.4	78.2	78.4
2011. 8	76.7	69.7	78.6	72.5	80.2	79.2

주: 2008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률에 대한 설문이 조정되었다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, 각 연도 8월.

〈표 5〉 청년 임금근로자의 여타 혜택

(단위: %)

	퇴직금		상여금		시간외수당		유급휴가	
	15~29세 임금근로	30~54세 임금근로						
2003. 8	57.8	56.8	56.8	55.0	41.7	44.2		
2004. 8	59.7	56.9	57.5	54.5	46.4	46.7	51.4	48.5
2005. 8	60.3	57.5	59.0	55.6	47.3	47.2	50.4	48.4
2006. 8	61.9	57.7	60.6	56.8	46.1	46.1	48.5	47.0
2007. 8	67.4	60.4	65.5	59.3	48.2	47.2	59.4	52.8
2008. 8	71.5	64.5	65.3	60.5	45.6	46.8	62.5	56.1
2009. 8	70.3	65.9	71.0	65.7	47.2	48.2	66.2	60.6
2010. 8	70.9	67.5	72.5	69.5	48.4	49.3	68.0	62.6
2011. 8	73.5	69.8	74.2	70.3	48.4	48.8	66.3	60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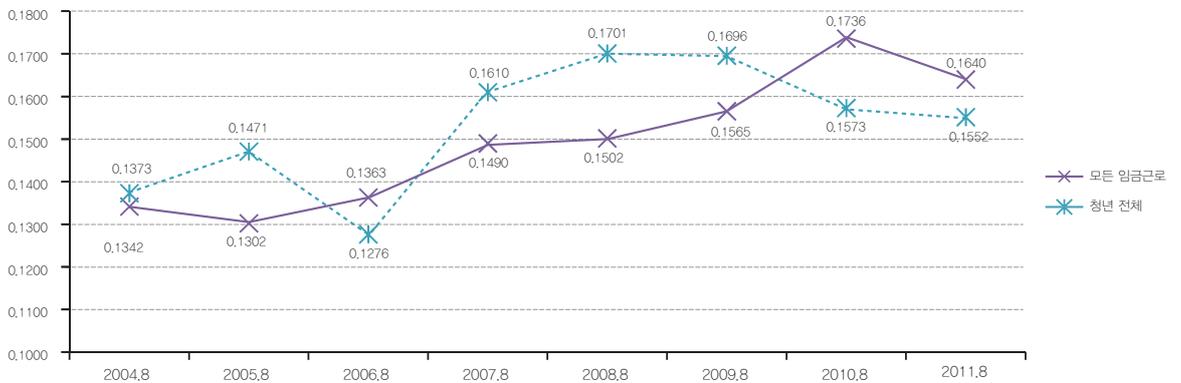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, 각 연도 8월.

- 분석결과 2004년 이후 사업체 규모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이 증가함.
 - 2004년 이후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왔고, 그 결과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좁은 문턱의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휴학 및 학기연

장을 통해 졸업을 늦추고 있음.

- 이는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‘괜찮은 일자리’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및 대기업 사이의 일자리 질 격차를 좁히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.

[그림 8]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의 변화(2004. 8~2011. 8)



주: 1~29인 기준. 사업체를 1~29인과 30인 이상으로 구분하고, 1~29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을 추정함.

김재호 (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keum@kli.re.kr / 02-3775-5553

※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.kli.re.kr를 통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


발행인: 이인재 / 편집인: 남재량 / 편집·교정: 정 철
150-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
Tel : 02-3775-5514 / Fax : 02-3775-0697 / www.kli.re.kr